



솔벤시 2 최근 동향

장동식 수석연구원

요약

■ 유럽연합의 솔벤시 2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유럽 3대 기구¹⁾가 솔벤시 2 지침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는 옴니버스 2 지침 제정안을 확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최근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옴니버스 2 지침 제정안 확정을 위해 계량영향평가인 장기보증평가를 실시하였고, 준비 로드맵을 규정하고 있는 준비 가인드라인(안)을 마련하였음. 이러한 노력은 시행시기 확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장기보증평가 관련 이론과 영향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과 지침 제정 후 조치 등을 감안하면 시행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 솔벤시 2는 현행 지침에 따라 2014년 1월에 시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 유럽의회는 옴니버스 2 지침 제정과 관련한 유럽 3대 기구 간 협의 일정, 지침 확정 후 후속조치 등을 감안하여 2012년 9월에 솔벤시 2 시행일을 2012년 10월에서 2014년 1월로 연기하였음.
- 그러나 솔벤시 2 시행 연기 사유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유럽 감독기구와 유럽 내 감독 당국 및 보험회사들은 2014년 1월 솔벤시 2 시행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는 유럽 3대 감독기구와 유럽 내 감독기구들이 2014년 1월까지 옴니버스 2 지침 제정, 옴니버스 2 지침과 솔벤시 2 지침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종결할 수 없기 때문임.

■ 솔벤시 2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유럽 3대 기구가 솔벤시 2 지침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옴니버스 2 지침 제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유럽 3대 기구는 장기보증 특성을 지닌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와 시행일 변경 등을 솔벤시 2 지침에 반영하는 옴니버스 2 지침을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²⁾

1)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를 말함.

- 그러나 장기보증 특성을 지닌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방법과 이를 규정하는 법체계 등에서 유럽 3대 기구가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 옴니버스 2 지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³⁾
 - 예를 들면 장기보증평가를 지침(directive)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지침 하부규정인 기술기준(technical standard)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⁴⁾

■ 최근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 Pension Authority)은 장기보증평가(LTGA: Long-Term Guarantee Assessment)실시 결과를 발표하였음.

- 유럽 3대 기구는 옴니버스 2 지침 제정안 검토에 필요한 장기보증평가를 2013년 상반기에 실시할 것을 유럽보험연금감독청에게 요청하였음.
 - 한편 유럽의회는 옴니버스 2 지침 제정(안)을 2013년 10월에 의결한다는 계획을 공시함.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이를 통해 장기보증평가의 핵심인 매칭조정(Matching Adjustment), 경기 대응 프리미엄(Counter-Cyclical Premium) 등을 제안함.⁵⁾
 - 또한 장기보증평가 결과보고서에서 경기 대응 프리미엄을 대체하는 변동성 조정(Volatility Balance)을 새롭게 제안함.⁶⁾

■ 또한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준비 가이드라인(안)을 통해 2016년 완전이행을 가정한 솔벤시 2 준비 로드맵을 제안하였음.

-
- 2) 유럽집행위원회는 2011년 1월에 옴니버스 2 지침 제정(안)을 제안하였고,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2011년 7월, 9월에 옴니버스 2 지침 수정제정안을 각각 제안하였음.
 - 3) Ian Poynton · Jonathan Goodliffe(2012, 10), "Delays to Solvency II", Insurance and reinsurance news,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 4) 솔벤시 2 체계는 레벨 1 지침(framework directive), 레벨 2 실무기준(implementing measure-delegated acts by the commission), 레벨 2.5 기술 기준(technical standard by EIOPA), 레벨 3 감독기준(guidance by EIOPA) 및 레벨 4 사후평가(rigorous enforcement by the commission)로 이루어져 있음. 이 중 레벨 2.5 기술 기준은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중 정책적 판단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한 규정임(유럽집행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5) 매칭조정은 신용스프레드 변동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할 목적으로 투자전략과 상품특성을 감안하여 무위험이자율에 가산하는 값을 말하며, 경기 대응 프리미엄은 금융위기 시에만 보험부채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에 가산하는 값을 말함.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장기보증평가는 엄격한 부채요건, 자산요건, 매칭요건 등을 적용하는 전통적 매칭 조정(classic matching adjustment)과 전통적 매칭 조정에 적용되는 요건을 완화한 확장 매칭 조정(extended matching adjustment)을 매칭조정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250bp, 100bp 및 50bp를 경기 대응 프리미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6)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장기보증평가 결과보고서는 경기 대응 프리미엄이 단기변동성 영향을 줄이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리고 이 보고서는 부도위험을 차감한 통화스프레드(currency spread)를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 상황에서는 통화스프레드와 회원국 스프레드(national spread)에 의해 결정되는 변동성 조정을 새롭게 제안함(EIOPA(2013, 6), "Technical Findings on the Long-Term Guarantees Assessment", EIOPA/13/296, p. 149 참조).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2012년 12월 공표한 이행 의견을 토대로 지배구조,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ORSA), 감독보고, 내부모형 예비신청 등에 대한 준비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함.
- 가이드라인(안)은 2016년 1월 완전이행을 가정하여 솔벤시 2 이행 로드맵(안)을 규정하고 있음.⁷⁾
 - 이에 따르면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2013년 가을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여야 함.
 - 그리고 유럽 각국 감독당국은 2013년 말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2015년 2월에 유럽보험연금감독청에 준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앞에서 살펴본 유럽 감독기구들의 노력은 솔벤시 2 시행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솔벤시 2 시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① 투명한 재무건전성 정보에 대한 보험계약자 등의 접근 지연, ② 보험회사의 장기 전략 수립 저해, ③ 유럽 단일 감독체계 구축 저해 등임.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2014년 1월에 시행하지 못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2016년 완전이행(안)을 계획하고 있음.
- 그렇지만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노력 역시 옴니버스 2 지침 제정과 관련한 논란, 법적 절차 등을 감안하면 솔벤시 2 시행일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장기보증평가에 대한 이론과 그 영향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옴니버스 2 지침 제정(안)이 예정대로 의결될 수 있을지 불확실함.
 - 유럽 감독기구들은 위임법률, 기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유럽 각국의 감독당국은 자국 법규에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kiri**

7) Ernst & Young(2013), "Solvency II preparation: Analysis of EIOPA's consultation".